

## 2010년도 정기총회개최

우리협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0. 2. 26. 13:30~14:00
- 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청사(충남도지회)
- 참석자
  1. 내빈: 산림청장 외 7명
  2. 회원: 115명(위임장29명 포함)



○ 주요 회의내용

1.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공희성감사)
  - 나. 2009년도 업무보고(김준기전무)
    - 회의개최상황
    - 주요사업실적
    - 주요행사

- 대정부건의사항 관철 현황
- 신규 회원 가입 실적

2. 의결사항

가. 의안 제1호: 2009년도 결산(일반 및 국비)

- 수입 · 지출
- 회비 및 찬조금 징수실적

나. 의안 제2호: 2010년도 업무계획

다. 의안 제3호: 2010년도 예산

라. 의안 제4호: 정관개정

개정 의결 되어 산림청에 승인 요청 한 정관 별첨

마. 의안 제5호: 이사위촉

성명	생년월일	소속지회	산림내역	비고	
신숙자	'54. 9.18	경기	자영 · 가평 30 ha	청평자연휴양림	
이명빈	'53. 5. 9	강원	자영 · 원주 30 ha	황둔자연휴양림	
박병옥	'46. 5.26	전북	자영 · 진안 150 ha	성수산자연휴양림	
김태식	'32. 7. 3	전북	자영 · 진안 15 ha		
이기창	'49. 3.25	전북	자영 · 임실 453 ha		
장달식	'52. 2. 8	전남	자영 · 화순 29 ha		
박형만	'35. 1. 7	전남	자영 · 보성 126 ha		
신상근	'51. 6.10	경북	자영 · 청송 20 ha		
8명					

○ 기타 토의

- 임도시설자금의 용자조건이 2010. 1. 1부터 개선(10년 10년 → 20년 15년)되었으나 기히 사용한 것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협회에서 건의하여 달라.
- 협회에 미 가입 상태로 있는 독립가가 약 150명이나 된다. 각 지회별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가입 권고하여 협회가 세대교체 되면서 활성화 되도록 하자.

〈관련기사 10p ~ 11p〉

《정기총회 관련기사》

# “산림경영인들 신바람 타고 날로 발전하고 있다”

## 하문섭 산림경영인협회장 “정광수 임정이 임업인에 희망줬다” 강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하문섭)의 2010정기총회가 축제분위 기속에서 성료되었다.

정광수 산림청장을 비롯해서 김영수 충청남도 산림복지과장, 서경석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이규수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임영빈 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등 내빈들과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산림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신바람나는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초로 지원받아 경쟁력 있는 임업기를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델림(시범림)사업비 32억원을 최초로 지원받게 되어 신바람나는 임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문섭 회장은 특히 임업인 지원 정책자금 중 임도시설 지원금의 상환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개선하여 준 것이 임업인들을 신바람나게

### 산림경영인협회 총회 축제분위기 성료... 회원늘려 조직활성화 성과 양도세 감면, 모델림지원 등 임업인이 잘되게 하는 정책지원의 덕분

이날 총회 행사 인사말에서 하문섭 회장은 “정광수 산림청장의 임정이 임업인들에게 큰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임업인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원들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지난해 100여명의 회원이 늘어나 협회의 조직 활성화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하문섭 회장은 아울러 정광수 산림청장의 배려로 올해부터 임업인에 대한 산림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며 협회 창립후 숙원사업이었으나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산림청에서 이번에 관철시켜 줬다며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

또한 산림청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기계화 및 시설자금을 최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림경영인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외에도 산림경영인(독립가)의 정책자금 상환규제를 해지한 것과 74가지의 임업인이 잘 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광수 산림청장의 소통임정 성과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기총회 개최

# “대통령 ‘임업규모화’ 강조 뜻따라 임업인 잘되도록 정책 지원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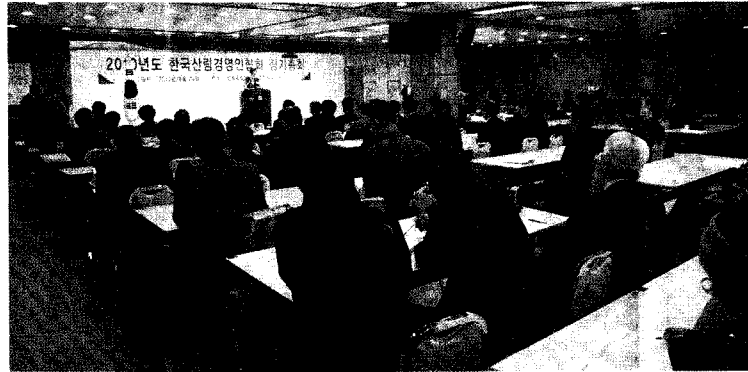
정광수 산림청장  
산림경영인지원 약속

정광수 산림청장의 임업정책이 임업인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정 청장은 임업인이 잘 되도록 하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지난날 28일 대전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 지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산림경영인들로부터 임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임업인이 임업경영성공에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이날 총회 축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임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며 임업인이 잘 되도록 임업규모화 등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 임업인 양도세 감면 등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추진을 임업인의 뜻에 맞게 개선했으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산림청의 임업인만족 실현정책에 큰 희망을 가졌다.

## 임업인이 임업경영성공에 실력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 임업규모화위한 규제완화... 임업인이 원하는 정책펼칠 것

전문임업인 육성지원, 임업인 모델림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임업인의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정 청장은 아울러 산림경영인

(독립가)은 임업인중의 전문임업인이라며 전문임업인이 잘되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임업인과 산림청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특히 대규모 산림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문경영을 하고 있는 전문임업인들이 과거 몇몇 실패했던 전문임업인처럼 실패해서는 안된다면서(전문임업인들이) 잘되게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모두가 성공하는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와 산림소유자가 함께 '명품 숲'만든다

- 산림청,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위해 전문임업인에게 30억 지원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우량한 사유림을 '산림경영모델숲'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30억원의 사업비를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집단화된 성공조림지 가운데 2009년 사업공모를 통해 1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부터 조림, 숲가꾸기 비용은 물론 숲 탐방로, 숲 체험장, 작업로 조성 등을 위한 부대사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숲을 가꾸기 위해 '산림경영 모델숲' 사업을 도입하였다"며 "지난해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여 왔으나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전문임업인 소유 산림도 사업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은 숲을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17개소가 조성되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모델숲'으로 선정된 사유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계·감리를 거쳐 해당 산림특성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유림 경영 모델 숲 역할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숲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주요원 사무관(042-481-4181)

## 산림바이오매스로 '녹색자원시대' 앞당겨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토론회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으로 녹색자원 시대를 앞당기고자 '10. 2. 10(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토론회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펠릿난방기 사용 농가, 펠릿생산자 등이 참석한다. 산림청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을 위해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한다.

'10. 2. 10일에는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 육성'에 대한 산림청 업무보고와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 주재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시설원예용 펠릿난방기 사용 농가, 펠릿 전문가, 펠릿생산공장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자원이 녹색자원시대 핵심 자원이 되도록 아이디어를 모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수원), '10. 2. 10(수) 15:40~, 34명 참석

산림청에서는 청정농산물 생산 등을 위한 펠릿난방기 수요 확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교육과 홍보기능 강화 등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 장소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는 산림바이오에너지 자원의 초석이 되는 백합 나무, 정이품송, 무궁화 등 유전자원 연구기관으로 녹색자원시대 토론회 장소로 더 큰 의의가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창설일자 : 1956. 4. 6)

- 연구내용 : 산림자원육성 및 용재수 개량 연구

단기소득수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 보급

산림유전자원 탐색 · 수집 · 평가 및 보존기술 개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실용화 연구

정광수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가 녹색자원의 핵심 자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시대에 적합한 자원이며, 앞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홍현정 주무관(042-481-4053)

## 산림청, 여의도 면적 6배 소나무림 집중관리 나선다

- 소나무림 관리에 효과적인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확대 -



산림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림 관리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이상고온 등의 영향으로 집단 고사한 남부지방 소나무 105만 그루를 전량 제거한데 이어 올해부터 소나무림 건강성 증대에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경남 산청, 전남 영광 등 9개 지역에서 소나무림 재해저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339ha의 소나무림에 대한 강도의 '숙아베기'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도 5,650ha에 대한 강도의 '숙아베기'를 통해 소나무림의 적정 간격을 유지해 줌으로써 소나무 생육에 필요로 한 햇빛·수분(양분)을 원활히 공급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매뉴얼'을 마련하고 100% 설계·감리와 규모화(30ha이상/개소)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킨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재해저감 시범사업을 통해 병해충 밀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둬와 동시에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전량 수집(8.4천m<sup>3</sup>)한 결과 약 7억원의 수익을 올려 산주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으로 약 60억원(20만m<sup>3</sup> 수집)을 산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1970년대 우리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소나무림은 서식환경 변화와 활엽수와의 경쟁에서 퇴출되는 등 현재 23%(150만ha)까지 감소했다"며, "올해부터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을 본격화해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절감, 산주소득 증대 등 적극적인 소나무림 관리를 통해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이영선 주무관(042-481-4069)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절반으로 축소, 규제완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군·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나무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관할구역 시·군·구청 산림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시행예정일 : 2010년 2월초순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연간 최대 이동가능거리는 3km 이므로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법 제정 당시(2005.5.31) 반출금지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3km이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였으나, '행정동·리'단위로 정하여도 구역경계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뿐만 아니라, 재선충병 감염지역을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단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단위별 평균거리(직경)는 '읍·면·동'은 6.9km, '행정동·리'는 1.6km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를 '읍·면·동'에서 '행정동·리'로 변경할 경우 산림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을 '6km에서 3km로 축소'하여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일치시킨다.

이들 구역이 일치되면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이 방지되고, 반출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반출금지구역 외곽지역에 대하여는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재선충병은 '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05년도까지 계속 확산되다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피해목 제거, 예방용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을 철저히 추진한 결과 현재는 발생규모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박도환(042-481-4068)

## 산림청, 도시미관 고려한 가로수 수형관리 나서

-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 개발 -



앞으로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의 도심에서나 볼 수 있던 빼어난 수형(樹形)의 가로수를 우리나라 도심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가로수를 활용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수형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표지판과 간판 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의 가지치기를 실시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심 상가 간판 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올해부터 가로수 관리에 적용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직접 가지치기작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술자들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임원필 사무관(042-481-4227)

## 올해 첫 나무심기, 제주 서귀포에서 시작!

- 산림청,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위해 21천ha, 36백만그루 나무심기 착수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오는 19일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민악오름'에서 지역주민, 임업인,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의 대표적 자생수종인 종가시나무 3,000그루를 2ha에 걸쳐 심는 올해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산림청은 올해 2월 하순부터 4월말까지를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총 21천ha, 36백만 그루의 나무를 산불·병해충피해지, 벌채지, 유휴토지, 도시 자투리땅 등에 심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원료공급을 위해 바이오순환림을 6,000ha로 대폭 확대해 조성하고 목재 펄릿용으로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비롯하여 나무를 심는 산주에게는 정부가 조림비용을 지원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첫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남단 제주도 서귀포에서부터 강원도 접경지역에 이르기까지 적기에 조림을 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제 나무심기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목적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국민 누구나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나무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 주고 전국에 '나무시장'을 개설해 운영 할 계획이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차경희 사무관(042-481-4185)